

지역경제 죽이는 엉터리 구조조정

대주건설·C&중공업 퇴출...삼능건설·대한조선 워크아웃 “1년반 새 부채 1조원 상환한 자구노력 무시” 납득 못 해

20일 단행된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용경색을 풀어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엉터리’여서 해당 업체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광주·전남의 성장동력인 조선과 건설 업체가 4곳이나 포함돼 지역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9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이날 시공능력 100위권의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대주건설과 C&중공업을 퇴출 대상인 D등급(부실기업)으로 분류했다. 경남기업, 품림산업, 우림건설, 삼

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설 등 11개 건설사와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3개 조선사에 대해서 워크아웃(기업회생) 대상인 C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대주건설, 삼능건설, C&중공업, 대한조선 등 지역기업들은 이번 구조조정의 원칙도 기준도 모두 잘못됐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건설의 경우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금융대출 중단 상황에서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독자적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퇴출로 분류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수조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대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대주단 가입 건설사 34곳의 금융권 채무 29조원의 0.4%인 1천400억원에 불과한 회사를 무슨 기준으로 퇴출시키느냐”며 반발했다.

금융권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는 대주건설과 대한조선이 이번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회생노력을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조치가 1천60개 협력사와 8만여 근로자를 쫓아내고 실업으로 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지역 조선업은 57개 업체에서 2만5천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한해 매출만 5조3천억원에 달해 도내 전체 제조업의 약 34.8%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퇴출, 워크아웃 결정은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C&중공업의 금융권 여신규모는 총 4천521억원. 체불금은 토목·건설비 72억1천만원, 시설투자비 257억5천만원, 선박건조비 398억6천만원 등 총 728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불산단 내 선박블록 납품업체 11개사 20억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기업들의 피해규모는 111개 업체 140억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협력업체 20개사와 납품업체 300여개사는 지난 9월 C&중공업의 선박건조 중단 이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많이 포함돼 당혹스럽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새로운 미국 건설 약속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청중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취임했다. /연합뉴스

김석기 청장이 특공대 투입 승인

용산 철거민 진압 6명 사망...잇단 돌발변수 정국 요동

이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지난 19일 실시된 개각 후폭풍에 20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고라는 돌발 변수가 부상하면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4·6면)

당장, 이번 개각에서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

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참사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데다 진압과정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내에서도 문책론이 확산되면서 인사청문회 이전에 낙마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 4층짜리 건물에서 전날부터 집거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내정

자들의 자질과 업무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지만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인사청문회의 일전을 예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아침 용산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농성 현장에 대한 경찰 투입으로 빚어진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진상을 철저히 알아보고라 지시했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철거민들의 농성과 경찰의 진압, 철거민들의 사망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바마 美 대통령 취임

“통합의 시대 이끌겠다” 역설

경제 회생과 사회 통합을 기치로 내건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한국 시각 21일 새벽 2시) 공식 취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서편 광장에서 열린 제44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5면>

미 행정부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회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신속히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인의 단합과 책임, 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분열과 사회 갈등을 접고 미국을 통합의 시대로 이끌겠다는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서신을 전달하고 “변화와 개혁을 표방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온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북구 대우빌 5층
062-950-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세계적인 자동차사들의
Best Partner!

Global Best Franchise 2008-2009

POSCO